미군 털모자는 어떻게 군밤장수 모자가 되었나

전쟁 그리고 패션2

남보람 지음

털모자를 쓴 미 공군 중위(왼쪽)와 미군 털모자가 변용된 군밤장수를 모티브로 한 인형작품. 〈와이즈플랜 제공〉

한겨울 군인의 모습 하면 털모자를 빼놓을 수 없다. 추위와 생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뜻함 이면에 혹독한 겨울 날씨가 연상된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어느 참전용사는 '추위'와 '털모자'를 꼽았다.

미군 털모자가 한국에서 흥미롭게 변용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군밤장수 모자'다.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군고구마를 파는 장수에게 털모자는 방한을 위한 필수품이었다. 미군 동계 군복은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 힘들었지만 비교적 털모자는 구입하기 쉬웠다. 동네 어르신, 시장 상인, 노점 군고구마장수들이 쓸 수 있었다.

앞서의 예처럼 일상에서 쓰는 모자는 군복과 관련이 있다. 비단 그 뿐 아니라 입고, 신고, 메고 있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개선과 개악을 거쳐 현재의 수트에까지 군복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상 속 숨은 군복 이야기를 다룬 책 '전쟁 그리고 패션 2'는 군복 아이템이 어떻게 상용화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남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명품도 영감을 받는 군복'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는 '전쟁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한정된 시공간 속 특정 사건의 단면을 보고 있다고 규정한다. 그럴 만도 하다. '2차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 나치군이 폴란드 서쪽 국경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문장은 단편적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은 전쟁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감각과 욕망을 통해서도 전쟁을 인식할 수 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13번 '바비야르'를 통해 파시즘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패션을 통해서도 전쟁을 읽어낸다. 1980년대 미국 브레이크 댄서들이 왜 공군 조종복을 입고 춤을 추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살아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Passion이 만들어낸 Fashion은 아름답고도 숭고하다. 그리고 이를 인식한 천재들에 의해 일상과 무대 그리고 스크린으로 옮겨졌다.

낙하산 바지의 유래는 공군 조종복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영화 '탑 건'에서 주인공 탐 크루즈가 입고 나왔다. 공군 조종복은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제1차대전 당시 호주 공군 조종사이자 발명가인 프레드릭 시드니 코튼이 방한과 방풍을 위해서 고안됐다. 그 이름 일부를 따서 '시드-코트'라고 부른다.

80년대 초 브레이크 댄서들은 미 공군 조종복을 입고 춤을 췄다. '질기고 매끈매끈하니 춤추기에 적당하여 선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 영화 '파일럿'을 보면 주인공이 조종복을 입고 거리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면 아는 '판초 우의'라는 비옷이 있다. 입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깔 수도 있는 전천후 우의다. 남미 칠레 원주민 아라추칸족 말로 '양털로 만든 천'이라는 뜻이다. 따뜻하고 유용해서 남미에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입고 나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남북전쟁 초기 판초 우의는 보온, 방수, 덮개, 텐트 등 다용도로 사용됐다.

저자는 "전쟁 속 사건의 연대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한 패션 같은 소재를 통해 전쟁의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느끼는 쪽이 더 나은 역사공부"라고 말한다. 〈와이즈플랜·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생각하고 들으면 더 좋다…음악에 얽힌 8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

정경영 지음

음악, 그 중에서도 클래식 관련 책들은 아주 전문적인 서적이 아닌 바에는 몇가지 비슷한 패턴이 있는 듯하다. 작곡가와 다양한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클래식에 흥미를 갖도록 이끄는 책들은 결국 어떤 음악을, 어떻게 '듣고 감상할 것'인가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으시라'는 아주 친절한 안내서도 있고, 영화나 책, 미술 속에 등장하는 음악을 소개하며 초보자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하기도 한다. 이런 책들은 별 거부감 없이 "나도 한번 읽어볼까?"하는 마음을 갖게하며 무겁게 느껴지는 클래식의 벽을 허물기도 한다.

반면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은 왠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관련 책을 집어들기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한양대에서 음악사, 음악학, 음악 관련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정경영이 펴낸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음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음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여덟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가 2011년부터 한양대에서 강의해온 교양과목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 책은 우리가 대학에서 들었던 교양과목 '음악의 이해' 등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생각'에 방점을 둔 책은 확실히 조금 어렵게 읽히는 편이지만, 대학 교양 강의를 바탕으로 한 터라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 저자는 "음악에 대해 '생각'하게되면 음악이 더 좋아지고, 음악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리라 여겨" 책을 썼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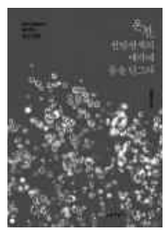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 '음악에도 사투리가 있나요?'를 주제로 펼쳐지는 첫번째 이야기는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이 주제를 통해 저자는 음악이 가진 '권력'에 대한 견해를 들려준다. 그레고리안 성가, 영국민요 '푸른 옷소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송' 등을 예로 들며 음계의 문제 등을 고찰한다.

책은 또 가사가 있는 성악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기악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폼(Form)나는 음악-기악 음악이 말하는 방식'을 비롯해 '소음의 정치학', '바흐가 어쩌다가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음악분석을 위한 변명', '틀린 음악', '음악회장의 조명은 언제 꺼졌을까?'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설명에 곁들어지는 악보와 큐알코드로 만날 수 있는 베토벤 '운명',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등의 음악은 글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최유준의 '음악 문화와 감성 정치'(작은 이야기), 니콜라스 쿡의 '음악에 관한 몇가지 생각'(곰출판) 등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한다. 더불어 문학평론가 김현의 '분석과 해석',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등도 함께 권한다. 〈곰출판·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여자 사람 검사=9년차 워킹맘 검사들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 검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정신없이 출근하고, 회사에서 부장의 결재 반려에 괴로워하며, 주말에는 중고 거래를 하고 전셋집을 찾아 발품을 파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저자들은 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강조한다. 〈라곰·1만5500원〉

▲온천, 천탕천색의 매력에 몸을 담그다='온천 소믈리에' 이은주가 들려주는 온천의 효능에 관한 이야기. 온천의 탄생에서부터 온천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를 풀어낸 31꼭지와 온천 여행 9편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온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역사는 얼마나 오래 됐는지, 우리가 온천에 대해 어떤 오해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다양한 색을 띤 온천 사진도 실었다. 〈지성사·1만8000원〉

▲15살 자연주의자의 일기=자폐증을 겪는 15세 소년 다라 매커널티의 환경 에세이다. 환경운동가이자 에세이 작가로 활약하는 저자는 교실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며 상처 속에서 방황하던 중 자연을 발견한 뒤로 이를 찬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열두 달 동안 정원과 야생의 세계에서 직접 마주한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전한다. 〈뜨인돌·1만5000원〉

▲케이팝 시대를 항해하는 콘서트 연출기=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데이식스, 시엔블루, 태연, 규현 등 K팝 월드 투어를 연출한 김상욱이 썼다. 소품으로 쓸 박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헤맨 이야기부터 태풍 소식에 초조해하며 연 긴급회의, 12m의 표범 인형을 운반한 일화 등을 소개한다. 예비 콘서트 연출 PD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팁도 알려준다. 〈달·1만4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새 친구 스누지와 써니 그리고 소소=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잠꾸러기 고양이 스누지와 씩씩한 강아지 써니는 스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화창한 봄날, 산책을 나섰다가 강아지 소소를 만난다. 스누지와 써니는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있는 소소를 데리고 나와 함께 노는 것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다음날 생일 파티에도 초대하며 친구가 된다. 〈지양어린이·1만2500원〉

▲기후 변화가 내 탓이라고?=뜨거운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기후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쟁점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화 형식으로 풀었다. 기후 활동가와 패션 기업 사장의 대화, 탄소 배출 목표량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지도자가 벌이는 토론, 온실 가스를 유발하는 석유 회사 대변인의 TV 토론회 등을 통해 기후 변화 해결법을 설명한다. 〈그레이트북스·1만5000원〉

▲뻥이야!='까까똥꼬 시몽' 23번째 시리즈다. 웃음을 얻기 위한 시몽의 거짓말이 시작됐다. 그런데 횟수를 더할수록 장난 섞인 거짓말도 그 정도가 심해진다. 시몽은 이제 깜짝 웃음을 넘어 엄마와의 약속도 어기게 된다. 시몽의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시몽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정직'을 강조하는 대신, 공감과 존중, 유머를 잃지 않는 너그러운 양육 태도로 시몽을 이끌어 준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